

사진기사의
또한 것



열아홉 대한 건아

“어느덧 열아홉. 대한 건아로 다시 태어납니다.”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을 소유한 열아홉 광주·전남지역 청년들이 9일 광주시 동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징병검사를 받았습다. 폐기 넘치고 파릇파릇한 청년들이 징병검사장을 가득 메웠습다.
올 해 처음으로 모든 수검자들에게 혈구 검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백혈병, 자반증, 재생활양성 빈혈 등 각종 혈액질환을 검사한답다.
가족과 친구, 연인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심란하기도 하지만 이왕 가야 할 것 당당하게 징병검사에 응합니다. 국방의무도 다하고 더불어 건강검진도 하니 일석이조라며 흔쾌히 혈액채취를 위해 팔을 내밉니다. 붉은 피가 주사기를 타고 모아집니다.
이 붉은 피는 젊음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대한민국입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리빙 센스

몸매를 살리는 요가 ④

- ▲역물구나무 서기
장 운동이 활발해져 변비가 없어진다. 머리가 맑아지고 허리와 종아리가 가늘어진다.
① 천장을 향해 눕는다.
② 양손으로 몸통을 떠받치며 다리와 상체를 높이 올린다.
③ 치켜든 상체와 다리는 바닥과 직각이 되게 한다.
④ 턱과 가슴이 맞닿을 수 있도록 최대한 몸을 바닥에서 떼고 거꾸로 선다.
- ▲태양 자세
척추 엉덩이가 올라가고 등 라인이 예뻐진다. 다리의 뭉친 근육도 풀리며 턱과 목선도 예뻐진다.
① 숨을 마시면서 오른쪽 다리를 쭉 편 채로 뒤로 빼고 왼쪽 다리는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앞쪽을 향한다. 상체를 최대한 젖혀서 얼굴이 천장을 향하도록 한다.
②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오늘의 유머

▲문제 있는 부부
한 부부가 결혼 상담소를 찾았다. 많은 것을 물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난 상담소 직원은 부인에게 다가가 일어나라고 하더니 껴안았다.
그런 뒤 상담사가 남편을 보고 말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부인에게 이렇게 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잠시 생각 하더니 말했다.
“알았어요. 내일은 몇 시에 데리고 올까요?”

▲직업
한 의사가 아내와 함께 외출해서 걸고 있는데 풍만한 가슴을 자랑하는 아가씨가 의사에게 정답게 인사를 건넸다.
아내가 뽀뽀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저 여자 누구예요?”
얼굴이 붉어진 의사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저 직업상 알게 된 여자일 뿐이요!”

“직업상으로도?
아내는 잔뜩 약이 올라서 따지고 들었다.
“그렇다니니까!”
그러자 아내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 쪽 직업 말인가요, 아니면 여자 쪽 직업 말인가요?”

▲돼지 삼형제
한 유치원에서 여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
“첫 번째 돼지가 이웃 농가에 들어가서 농부에게 말했어요. ‘농부 아저씨,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벗짚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농부는 돼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자 한 꼬마가 손을 들고 말했다.
“와 말하는 돼지다!”라고 했어요.”

▲무슨 색?
할머니가 유치원에 다니는 손녀에게 색깔을 가르쳐주려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의 색을 물었다.
“아가 이 전화기는 무슨 색이지?”
“그럼 저 시계는?”
“노란색.”

손녀가 계속 잘 못하자 할머니가 신이 나서 이것저것 계속 물어보았다. 한참을 대답하던 꼬마가 지겨운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계속 나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유치원에 가보세요. 그러면 할머니도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장난감
장난감 가게에서 한 여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집원에게 물었다.
“이건 어린이가 장난감치고는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그러자 집원이 친절하게 대답했다.
“부인, 이 교육용 장난감은 어린이가 요즘 세상에 적응해 나가도록 도와준답니다.”
“어떻게요?”
“이건 어떻게 맞춰봐도 제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실현실 생활
박사과정,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과 교수 이렇게 세 명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면서 교정을 걸고 있었다.
우연히 길 옆 화단에 오래된 램프를 발견한 이

들이 램프를 문지르자 램프의 요정이 나와 말을 했다.
“저는 세가지 소원만 들어드립니다. 한가지씩 저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석사과정의 학생이 재빨리 앞으로 나와 말했다.
“나는 슈퍼모델과 함께 아늑한 남태평양 섬에서 지내고 싶어.”
이 말과 함께 학생이 사라졌다.
다음으로 박사과정 학생이 말했다.
“나는 내 애인과 함께 하와이에서 쉬고 싶어.”
그러자 박사과정 학생도 사라졌다.
램프의 요정이 교수를 쳐다보자 교수는 아무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까 있던 두 사람이 점심식사를 마친 뒤 바로 실형사로 돌아왔으면 하네.”

▲애주가
술을 좋아하는 남자가 바에 들어갔다.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왔다.
“음료수는 맥주, 와인, 정종, 위스키, 브랜디가 있는데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그러자 술 좋아하는 남자가 대답했다.
“그 순서대로 주세요.”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0일(음 5월 7일 辛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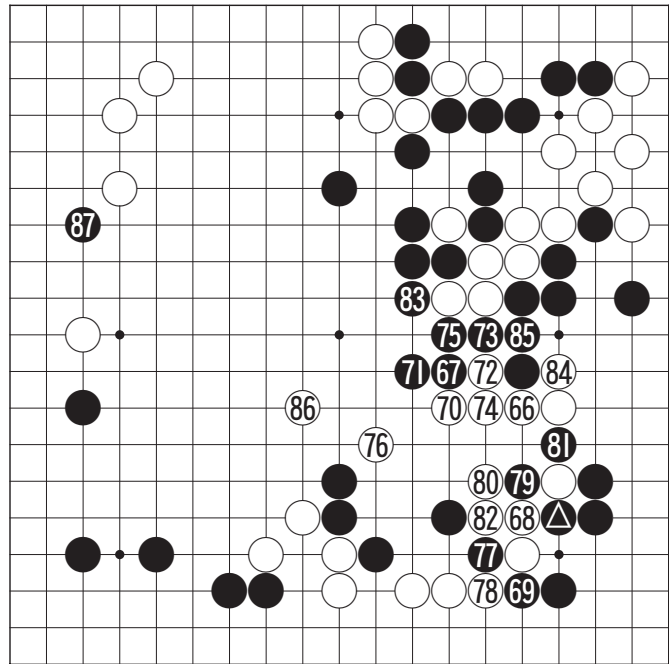
子	36년생 협력자는 나타나나 신중하라. 48년생 제사가 불편하니 안경을 취하라. 60년생 몸과 마음의 안정이 일의 실마리를 풀 것이다. 72년생 신규 투자는 내일로 미루어야 손실이 없다. 84년생 자신만만 하지마라 적병이 숨어있다. 행운의 숫자: 15, 41
丑	37년생 직장과 아내 사이에 불륜사가 발생한다. 49년생 길한 일과 흉한 일이 동시에 있다. 61년생 서로 이해하면 부부간의 불화는 해소된다. 73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진행은 지연된다. 85년생 모든 일이 편안하지만 내일을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20, 45
寅	38년생 대고는 없으나 편지도 없다. 50년생 흥과 복이 다반사니 수양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62년생 직업에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74년생 아내와의 불화를 대화로 해결하라. 행운의 숫자: 11, 27
卯	39년생 자신의 발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좋은 길 보인다. 51년생 좋은 매너로 조신한 처녀가 따르리라. 63년생 규모를 축소하고 내실을 기하라. 75년생 주변이 자신의 길을 어렵히 하니 중중하게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12, 45
辰	40년생 사소한 일로 관청에 가는 수도 보이나 자중이 최선이다. 52년생 금방이라도 그만치니 천천히 진행하면 잘못은 없으리라. 64년생 화해보다 더 좋은 해결은 없다. 76년생 남이 시비를 걸어서야 현명하게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08, 30
巳	41년생 걱정을 하지마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53년생 실상의 안정이 모든 일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 65년생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면 할 일이 생긴다. 77년생 꾸준히 노력한 대가가 나타나려는 시기다. 행운의 숫자: 09, 40
午	42년생 큰 계획으로 일해야 더욱 값진 수확을 얻으리라. 54년생 제사가 불편하니 주변에서 도와주는 중인이 스스로 나타나다. 66년생 희망의 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온다. 78년생 문서는 쥐었으나 실리는 없다. 행운의 숫자: 07, 36
未	43년생 타인의 시기가 괴롭히니 조심해서 하루를 보내라. 55년생 소심한 행동이 관리를 그르치니 적극적으로 사교하라. 67년생 재빨리보다는 살리가 우선이다. 79년생 작은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20, 37
申	44년생 걱정의 문서가 속삭이니 오늘은 잊어버려라. 56년생 좋은 일은 이웃과 함께 하라. 68년생 화려한 과거는 꿈으로 생각하고 지선을 생각하라. 80년생 좋은 소식이 들리니 가족에게 전하라. 행운의 숫자: 21, 38
酉	45년생 내일을 위해서 힘을 아껴두어라. 57년생 가족은 최고의 협력자나 사람으로 보살피라 큰 힘이 나온다. 69년생 외형을 줄이고 실속위주로 추진하라. 81년생 서로가 이해하면 서로가득 이 된다. 행운의 숫자: 14, 27
戌	46년생 끈기 있게 진행하면 결과가 좋으리라. 58년생 오늘은 즐거우니 무엇이 부러우라. 70년생 가까운 곳에서 협조자가 나타나니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82년생 문단속을 잘하면 마음이 편하다. 행운의 숫자: 17, 25
亥	47년생 외형은 줄이고 실리위주로 진행하라. 59년생 귀를 막고 지내면 마음도 편하다. 71년생 살리는 적고 할 일은 많다. 83년생 마음이 갈갈질질하니 정신을 가다듬고 착하게 살아라. 행운의 숫자: 03, 29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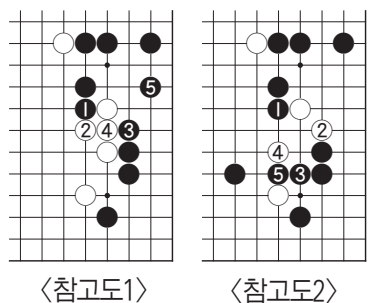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제17회 光日盃

서로의 급수
2회 1국 4보 (66~87)
白 김영수 5단 黑 백승열 5단 (전남교사회)



백승열 5단이 한껏 기합을 넣어 흑 ▲로 강력하게 차단하고 나섰다. 이 수로 인해 백이 곤란해 보이는 장면인데 김영수 5단은 예상했다는 듯이 함몰되지 않고 백 66으로 슬쩍 비켜 흑의 예봉을 파헤쳐버린다.

이 수가 절대선수가 되어 다음 68로 막으니 흑 ▲는 아무 쪽에도 쓸모 없는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흑 ▲로는 66자리에 두는 것이 피아간의 급수였다. ‘참고도 1’의 흑 1로 밀고 백 2면 3,5로 건너간다. 이것은 건너나 살리가 크고 중앙이 두터워 활판하다. 또 백이 ‘참고도 2’의 2에 막는 것은 이변에야 말로 3으로 밀고 나와 흑이 파탄이다.
중요한 승부처에서 급수를 거꾸로 얻어맞고 86까지 되어서는 흑이 망한 결과다. 화가 난 백 5단은 흑 87로 쳐들어 가는데...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윤혁·김일환 전자랜드배 8강

윤혁 5단과 김일환 9단이 제5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8강에 진출했다. 윤혁은 9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윤준상 7단을 상대로 288수만에 11집반승을 거뒀다. 김일환 9단은 박진열 8단을 불계로 꺾고, 이 대회 무명 반란에 합류했다.
먼저 8강에 오른 한중진 7단은 이세돌 9단을 꺾는 괴력을 보였고, 윤혁은 서봉수 9단과 윤준상을 연파했다. 또 16강전에서는 김승재 초단이 노영하 9단을, 박지연 초단은 루이나이웨이 9단을 각각 제압하는 등 초단 열풍을 일으켰다.
8강 토너먼트는 10일 계속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178>

Did you get a present to John yet?
존에게 줄 선물 구입했어?

- A: Did you get a present to John yet?
B: No, I'm thinking about a shirt. Any idea what his shirt size is?
A: I can check.
B: That would be good.
- A: 존에게 줄 선물 구입했어?
B: 아니, 셔츠를 살까 하는데... 그 사람 셔츠 사이즈 알아?
A: 한번 알아볼게.
B: 그러면 좋겠다.

* 그 사람 셔츠 사이즈 알아?
= Any idea what his shirt size is?
*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일찍 떠났는지 알아?
= Any idea why he left so early?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178>

6年間ずっとフリタをしてるの。
6년간 계속 프리타 생활을 하고 있어.

- A: はなちゃんって彼氏(かれし)いるの。
B: うん、いるよ。
A: そうなんだ、いいな〜〜 °で、何してる人なの。
B: 彼(かれ)は、6年間ずっとフリタをしてるの。
- A: 하나짱은 말이야 남자 친구 있어?
B: 응, 있어.
A: 그렇구나, 좋겠다. 근데, 뭐 하는 사람인데.
B: 그는 6년간 계속 프리타 생활을 하고 있어.
- 無職(むしょく): 무직
フリタ: 한 직장인 유패이지 않고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일본 젊은 층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155>

你嘛?
당신은 어때요?

- A: 老师, 您好!
Lǎoshī, nǐ hǎo!
선생님, 안녕하세요!
B: 你好!
Nǐ hǎo!
안녕!
A: 您身体好吗?
Nín shēntǐ hǎo ma?
선생님, 몸이 괜찮습니까?
B: 很好, 你呢?
Hěn hǎo, nǐ ne?
안녕하, 나呢?
- 老师 [Lǎoshī] 선생님
身体 [Shēntǐ] 몸, 신체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 383-1605

한자 이야기 <795>

喝采(갈채)
외침 갈, 깔 채

갈채(喝采)는 보통 ‘박수(拍手) 갈채’라고 연용하면서 타인에 대한 ‘찬양이나 환영’의 뜻을 나타내지만 본의(本義)는 전혀 다르다. 채(采)는 본래 ‘무늬’나 ‘색’을 뜻하는 ‘채(彩)’이지만, 음(音)이 같아서 빌려온 글자이다. 따라서 ‘갈채’의 본뜻은 ‘색 깔(采)을 크게 외치다(喝)’가 된다.
옛날 도박판에서 주사위를 던지며 자기가 바라는 색깔을 외치던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張端義, 貴耳集) 지금도 율동을 할 때, 자기에 유리한 사위가 나오기를 바라며 ‘도’ ‘개’ ‘결’이라고 외치고, 주변에서도 ‘윷’ 또는 ‘모’를 외쳐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바라고 원하는 것을 크게 외치다’는 뜻이 변하여 지금은 ‘큰 소리로 외치며 찬미하다’는 뜻으로만 쓰인다.
이렇게 한자어가 전의(轉義)되는 과정에서 ‘색깔(采)’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며, 이 말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도박이나 놀이에서도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갈채의 대상도 주사위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